

럭셔리 SUV 시장의 조용한 강자 에비에이터 & 코세어



링컨 에비에이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최근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커지는 SUV 시장에서 럭셔리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하다. SUV는 이제 럭셔리 브랜드를 통해 첨단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넓은 공간감을 가진 차량으로 재조명돼 그 가치와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중 링컨은 지난 4월에 공식 론칭한 대형 SUV 에비에이터와 5월에 출시한 소형 SUV 코세어, 그리고 작년 5월에 선보인 중형 SUV 노틸러스를 바탕으로 SUV 전 라인을 완성하며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출시된 링컨의 신형 SUV들은 우아하고 품격있는 외관 스타일과 함께 링컨 스타 엠블럼을 중심으로 하는 시그니처 그릴이 적용된 패밀리룩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에비에이터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로 신차의 새로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꼽

았다. 에비에이터의 신규 등록 고객의 경우 상당수가 럭셔리 브랜드 차량의 소유주들로 파악돼 럭셔리 SUV 시장에서 링컨 SUV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요한 비행’(Quiet Flight)을 SUV로 구현한 링컨 에비에이터

에비에이터는 링컨의 진보된 기술을 탑재한 야심작으로,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은 우아한 내·외관 디자인과 트윈 터보 3.0ℓ V6 엔진에서 나오는 405마력, 57.7kg.m 최대 토크의 출력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 이면에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다. 또 차량 전방의 시그니처 그릴에서부터 바디와 루프까지 이어지는 날렵한 라인과 경사진 지붕, 날개를 연상시키는 테일 램프를 통해 우아하고 동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일등석에 앉은 듯 편안하게 오롯이 즐기는 나만의 시간

에비에이터는 30방향 퍼펙트 포지셔닝(30-Ways Perfect Positioning) 가죽 시트를 적용했다. 운전자의 체형을 섬세하게 맞추며 마치 항공기의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듯한 느낌을 준다. 차량 내 측면과 천장에 전략적으로 분포한 28개의 스피커는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레벨 울티마(Revel® Ultima) 3D 오디오와 함께 운전자에게 최상의 청취 경험을 선사한다.

에비에이터는 코-파일럿 360 플러스(Co-Pilot 360 Plus)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운전자를 위한 기술도 탑재해 안전한 주행을 보조한다. 에어글라이드 서스펜션은 도로의 노면 상태나 주행 모드에 따라 차고를 자동으로 조절해 최상의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운전자가 접근했을 때 최대 50mm까지 높이를 낮춰 손쉬운 탑승을 돕는 다이내믹 로어 엔트리 기능도 갖췄다.

럭셔리 SUV 라인업을 완성하는 콤팩트 SUV 코세어

코세어는 노틸러스, 에비에이터에 이어 링컨의 럭셔리 SUV 라인업을 완성하는 콤팩트 SUV다. 코세어는 ‘고요한 비행’이라는 브랜드 핵심 컨셉트를 계승했고,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는 물론 인간의 동적인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디자인은 링컨의 우아함과 더불어 다이내믹한 역동성까지도 엿볼 수 있다.



1, 2, 3 링컨 코세어

콤팩트하지만 강력한 힘

코세어는 콤팩트 SUV에서 경쟁력 있는 2.0터보차저 GTDI I-4 엔진이 탑재됐다. 이는 사륜구동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 최고출력 238마력, 38.7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8단 셀렉트시프트(SelectShift®) 자동 변속기는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코세어는 5가지 주행모드와 함께 두 앞바퀴 사이 속도를 능동적으로 조절해 향상된 코너링을 돕는 토크 벡터링 컨트롤(Torque Vectoring Control), 어댑티브 서스펜션 등을 적용해 승차감과 주행 능력을 높였다.

코세어는 소형 SUV지만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해 여유로운 실내 경험을 선사한다. 코세어의 전장은 4천585mm, 전폭은 1천885mm다.

자세한 내용은 링컨코리아 전시장 문의와 링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